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국토교통부 |         | <b>보도설명자료</b>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배포일시                 | 2020. 1. 9(목) / 총 2매(본문2)                   |
| 담당<br>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도로투자지원과 | 담당자                  | 과장 박병석, 사무관 김병철<br>• ☎ (044) 201-3897, 3906 |
| 보도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미래세대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

< 보도내용 (중앙일보, '20.1.9,목) >

◆ 미래에 부담 떠넘기는 ‘동일서비스, 동일요금’

- 현세대가 혜택을 보기 위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점
- 도로가 제공하는 최고의 서비스는 시간 단축...정부는 동일서비스라며 요금을 거의 재정으로 수준까지 낮췄다... ‘수익자 부담원칙’을 무시한 것
- 차별화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그만큼의 비용을 부담하는 게 당연
- 도공에 짐을 떠넘기다 보면 결국 국민부담 ... 국민이 세금으로 메워

-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,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도로를 적기에 확충하면서 현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 것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노선을 이용하는 미래세대와 합리적으로 분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‘동일서비스-동일요금’ 원칙은, 이용자 입장에서 목적지까지 빠르고 편리한 도로를 이용하고 나서 재정으로인지 민자도로인지에 따라 최대 2배이상 차이나는 비용을 지불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현재 모든 고속도로는 시간단축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목적지까지 이용한 거리를 기준으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.

- ☐ 천안-논산 민자고속도로에서 도공이 투자하여 통행료를 인하한 것은, 도공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민자가 종료되고 나면 도공이 천안-논산고속도로를 인수하여 운영함으로써 투자한 금액 전부를 회수하게 되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김병철 사무관(☎ 044-201-390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